논어 14편 헌문 42장 · 쓰기 연습

子擊磬於衞。有荷蕢而過孔氏之門者，曰：「有心哉！擊磬乎！」既而曰：「鄙哉，硜硜乎！莫己知也，斯己而已矣！『深則厲，淺則揭。』」子曰：「果哉！末之難矣！」

이 장의 글자를 문장 순서대로 따라 쓴 뒤, 바로 아래 빈칸에 써 보세요.

子擊磬於衞。有荷蕢而過孔氏

之門者曰有心哉擊磬乎既而

曰鄙哉硜硜乎莫己知也斯己

而已矣深則厲淺則揭子曰果

哉末之難矣

저본: 위키문헌 論語 · 편별 고정 판본과 전체 교정 기록은 출처 페이지를 참고하세요.